

“국민저항권”

: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저항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김중락
(경북대 명예교수)

목차

1. 국민저항권, 왜 지금 논해야 하는가?
2. 종교개혁가와 저항사상
 - 1) 마틴 루터
 - 2) 장 칼뱅
 - 3) 존 녹스
3. 스코틀랜드 장로회교회와 저항권의 발전
 - 1) 조지 뷰캐넌
 - 3) 사무엘 러드포드
4. 국민저항과 대중주권의 발전
5. What shall we do then?

1. 국민저항권, 왜 지금 논해야 하는가?

- 국민저항권- 독재정권에 대한 무력저항을 의미
- 서구사회에서는 영화의 주제로 자주 등장. 일부 국가에서는 현실. 한국에서는 정쟁과 관련하여 쟁점화
- 교회사에서는 중요한 쟁점이었고, 오늘날에서는 선교와 관련한 쟁점이 되고 있음

사례 1. 전OO 목사

- **배경** : 25년 1월 19일 윤석열 前대통령 구속
- **주장** : 전광훈 목사의 국민저항권 주장
물리력의 필요성 암시
- **결과** :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
이후 <국민저항권운동> 지속
선동혐의로 구속

사례 2.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

- **배경** : 26년 1월 ICE의 지나친 단속
단속 항의 시민 총격사살
미네아폴리스- 30대 여성 하차 거부로 사살
- **주장** : "지금은 일어서야 할 때"
"착한 말썽'(Good Trouble)" 주장
"안네 프랑크에게 일어난 일도 당시엔 '합법'
...여러분은 옳은 일 알고 있어"
- **결과** : 시민운동으로 확산, ICE 철수

1. 국민저항권, 왜 지금 논해야 하는가?

저항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저항 불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신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신이 정한 바라. (롬 13:1)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 (딤후 3:1)

저항 가능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
(롬 13:3)

인간의 모든 제도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벧전 2:13-14)

1. 국민저항권, 왜 지금 논해야 하는가?

강의 전제

- 무력저항(Armed Resistance)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전제
*Passive Resistance (비폭력 불복종운동)은 배제
- 기독교인 단체 및 다수의 기독교인 국민을 전제
- 저항의 주체는 누구인가? 관료, 귀족 주도 – inferior magistrates 주도 or 사적 개인의 저항 ?
- 역사적 접근 - Protestant Reformers와 역사적 실례 중심
Calvinist 중심- 한국교회의 상황 고려

1. 국민저항권, 왜 지금 논해야 하는가?

주요 사료

- 막데부르크 목사들, 「막데부르크 신앙고백」 (1550)
- 존 녹스, 『괴물 같은 여성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 (1558)
- 장 칼뱅, 『기독교강요』 (1559년판)
- 익명, 『폭군토벌론』 (1579)
- 조지 뷰캐넌,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1579)

- 사무엘 러더포드, 『법과 군주』 (1644)
- 제임스 스튜어트, 『납달리』 (1667), 『방어에 대한 인간의 권리』 (1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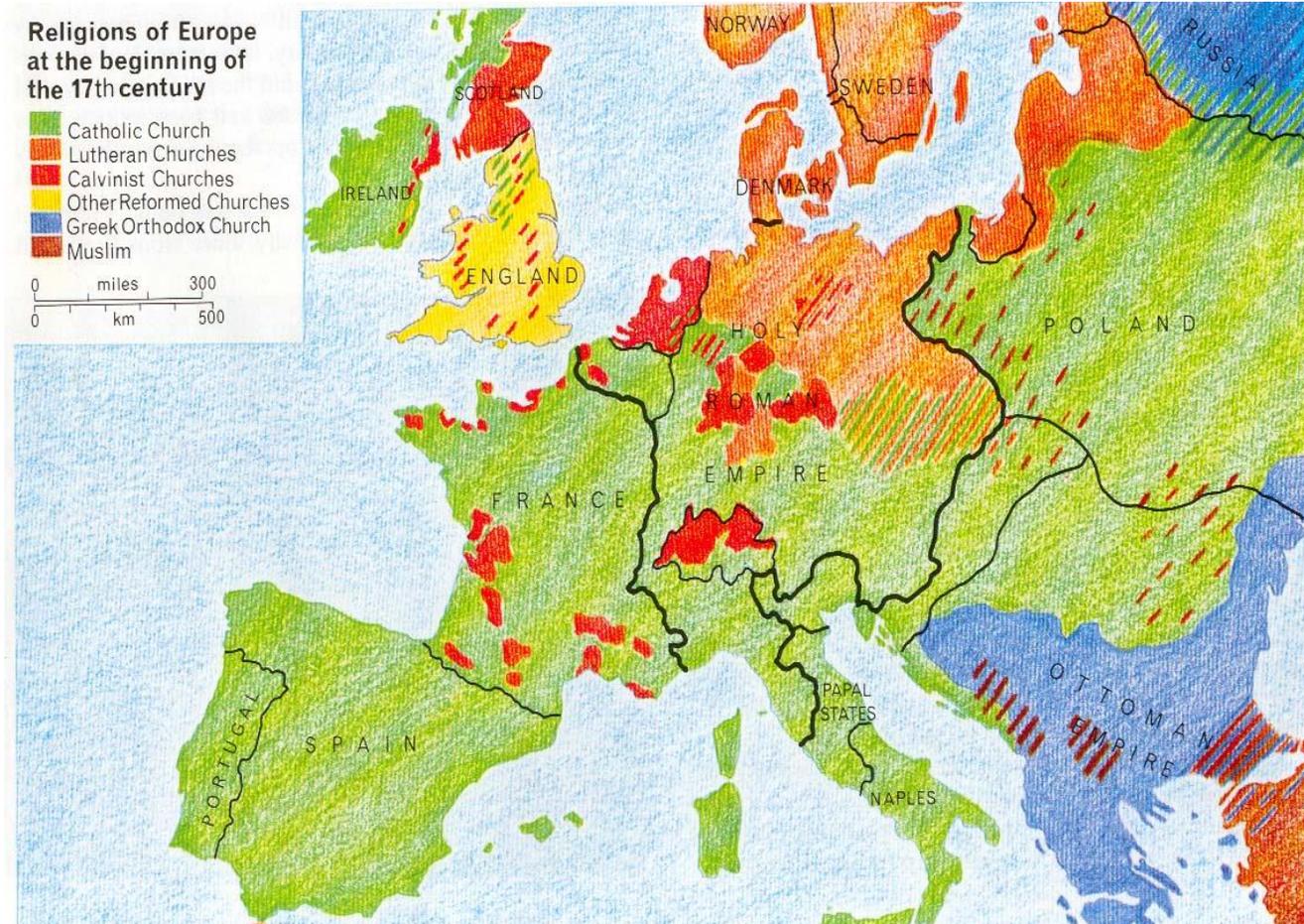
- 프란시스 웨퍼, 『기독교 선언』 (1981)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개요

-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 1534년 잉글랜드 종교개혁
- 1536년 제네바 종교개혁
- 1560년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 유럽 전역에서 신교도 탄압
⇒ 저항권 담론의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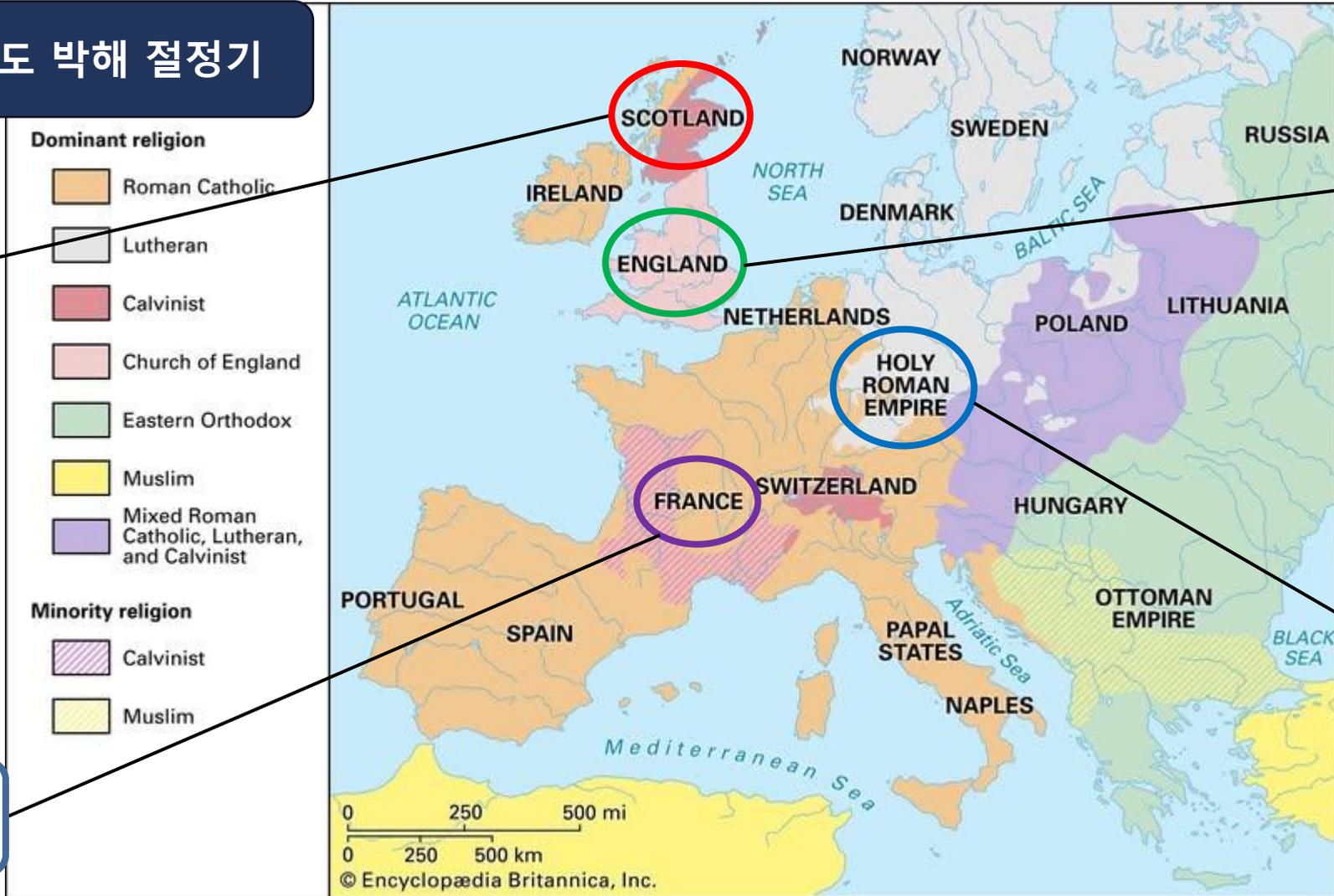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국가별 신교도 박해 절정기

스코틀랜드
: 1550s

프랑스
: 1550s부터 시작



잉글랜드 : 1550s

독일 : 1540-5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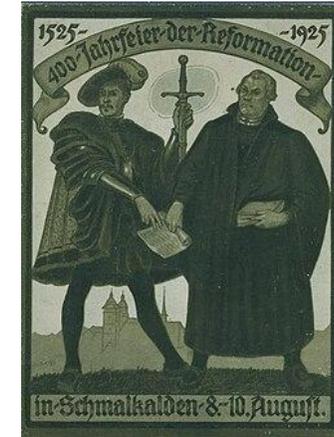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루터파와 신교도 저항의 시작

-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루터파 탄압
- 루터파 제후들 : 슈말칼덴 동맹 체결 (1531)
- 황제와 1-2차 슈말칼덴 전쟁 (1546-52)
- 전쟁 중 루터파 제후들이 무력저항의 정당성 주장하기 시작
⇒ **막데부르크 신앙고백**



교회 법정에서 변론 중인 루터



슈말칼덴 동맹 400주년 기념 엽서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막데부르크 신앙고백」(1550)

- 신교도 저항권을 명시한 최초의 문서
- 저항의 주체를 '귀족 및 관료'(magistrates)로 설정

관료는 선한 일을 존중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는 신의 규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그에게는 더 이상 신의 규례가 없고 마귀의 규례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저항하는 자는 신의 규례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규례에 저항하는 것이다.

- 결과 :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Augsburg Peace)
(한계 : 종교 속지주의)



막데부르크 신앙고백 초판본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루터의 저항사상

- 무저항 순종의 원칙 고수

만일 집을 수색하고 책이나 물건을 강제로 압수한다는 명이 내려질 경우, 그들은 이를 감내해야 한다. 불법행위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불법적 명령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손과 발을 다하여 섬기거나 복종하거나 따르지 말아야 한다.

마틴 루터, 『세속권력에 관하여』

- 농민 봉기에 대해서도 무력 진압 주장 ⇒ 세속권위에 대한 순종의 측면
- But 루터의 무저항 원칙을 벗어나 무력저항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루터파**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칼뱅의 저항사상

- 초기 무저항 순종의 원칙 고수

97. 우리는 선한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권위를 부여받은 모든 이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설령 그들이 폭정을 행할지라도 말이다. 통치자들의 임명은 신의 권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98. 폭군이 통치할 때, 우리는 먼저 그러한 재앙에 의해 징벌 받는 우리의 잘못을 기억해야 한다. ... 악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인간의 마음과 왕국의 혁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뿐이다. 장 칼뱅, 『기독교강요』 (1536)



but 소극적 저항은 인정- 모세의 산파, 다니엘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칼뱅의 저항사상

- 1559년 - 입장을 변화, 앙리 2세 사망으로 가톨릭 기즈(Guise) 가문이 위그노 박해가 배경

만약 지금 왕의 자의를 억제하기 위해 임명된 백성의 치안관이 있다면... 저는 그들이 의무에 따라 왕의 맹렬한 방종에 맞서는 것을 결코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하찮은 평민들에게 폭력적으로 달려들어 폭행하는 왕들에게 눈을감는다면, 그것은 사악한 배신을 포함한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의해 백성의 보호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559 Institutes IV.20.31)

“만일 혈족의 군주들이 공동선을 위해 일어서고 의회가 동참한다면 모든 선량한 신민이 무력저항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 1562년 Gaspard de Coligny 제독에게 보낸 편지-

- 이후 Monarchomachs(국왕폐위론자)에 의해 계승
 - 위그노 저항사상의 등장 (익명, *Vindiciae contra tyrannos*, 1579)
 - 이후 30년 위그노 전쟁의 저항이론으로 사용됨

Q. Skinner- 종교적 이유뿐 아니라 헌정적 이유로도 무력저항 인정 - “Popular magistrates” , “Guardian”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녹스의 저항사상

- 브리튼 섬의 상황

잉글랜드 메리 1세(1553-58)

스코틀랜드 기즈 메리(1554-60)의 박해

- 존 녹스의 등장

- 저항권에 대해 가장 깊이 고민한 개혁가

당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대
개인적 체험과 관련 (갤리선 포로, 망명 등)



- *우상숭배하는 통치자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방어적 저항이 가능한가?*

- *경건한 귀족들이 우상숭배하는 통치자에게 저항할 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 제네바 망명 후 대륙의 종교개혁가들과 저항권 논의 (칼뱅, 하인리히 불링거, 베자 등)

- 1558-9년경 대부분 결론에 이른 듯 - 1558년 녹스는 <<첫번째 나팔>>, 칼뱅은 1559년 <<강요>> 저술

2. 종교개혁기: 신교도 저항권의 대두

녹스의 저항사상

- 1550년대 스코틀랜드 신교도 박해 심화 → 이후 저항적 논조 강화
- 신께서 귀족들을 세우신 이유는 "폭군의 불의한 탄압과 폭정에 저항하기 위한 것"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세벨이라 일컫는 여왕 메리에 맞서 저항하고, 나아가 우상숭배를 자행하는 성직자들과 여왕을 돕는 모든 이들을 여왕과 함께 **죽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잉글랜드의 귀족, 판관, 통치자, 그리고 신민들의 의무라고 확언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신교도 귀족들 주도 하에 스코틀랜드 내전 발발 → 1560년 종교개혁 성공

3. 스코틀랜드 장로회교회와 저항권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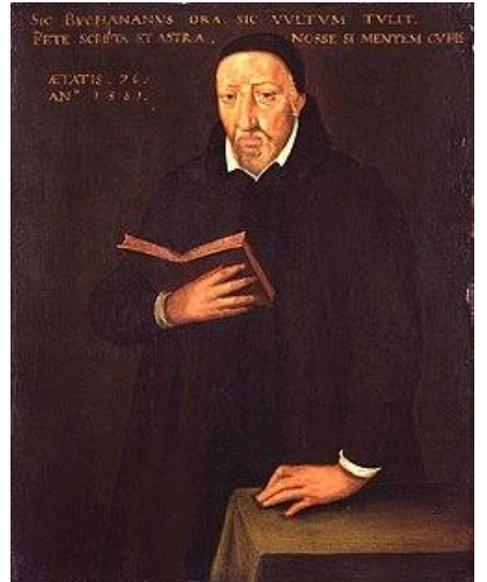
역사적 배경

- 1561. 메리 여왕의 귀국
- 1561-64. 가톨릭 여왕 vs. 존 녹스, 신교도 귀족들 간 대립
- 1567. 귀족들의 내전 및 여왕 폐위
- 1567. 제임스 6세 즉위(1살)

George Buchannan이 왕사로 임명됨 (엄격한 장로회 교육)

- 1568. 메리 여왕은 잉글랜드 망명 후 가택연금됨
- 1587. 엘리자베스 여왕이 메리 여왕 처형

이 과정에서 조지 뷰캐넌이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1578) 집필



3. 스코틀랜드 장로회교회와 저항권의 발전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① 사회와 통치자, 그리고 법의 기원

- 인간의 유대 본능 → 사회 형성
- 공동체 유지에 적합한 이에게 통치권 부여 → 왕의 특권을 감시하기 위해 법 제정

② 법에 따른 왕권의 제한

- 법은 "왕의 욕망과 행동을 통제하는 통치자", 폭군의 폭정은 공동체 파괴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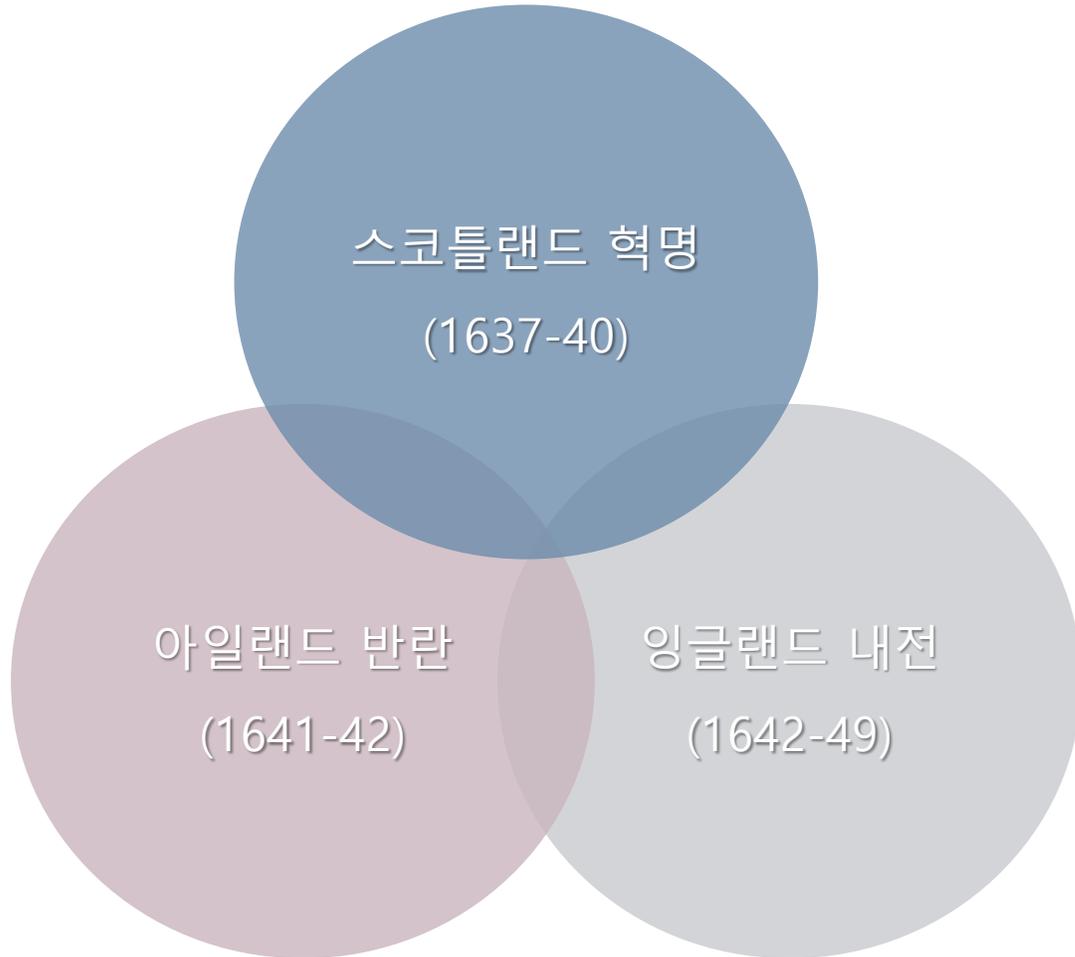
"왕은 말하는 법이어야 하고, 법은 말 못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③ 폭군에 대한 저항의 합법성

- 통치권의 핵심 : 왕 < 법 < 백성
- 공동체 존속에 대한 계약 및 법 위반 ⇒ 저항 및 폭군살해 가능
- 성경, 자연법과 스코틀랜드 역사에 근거한 저항이론 → 미국 독립혁명에 가장 큰 영향

3. 스코틀랜드 장로회교회와 저항권의 발전

17세기 영국혁명의 발발



3. 스코틀랜드 장로회교회와 저항권의 발전

영국혁명의 개요

- 원인 : 찰스 1세의 친가톨릭 종교정책
- 경과 : 1637. 기도서 폭동
1638. 국민언약(National Covenant) 성립
⇒ 언약도(covenanters) 등장
1641. 아일랜드 반란
1642. 잉글랜드 내전
1643. 엄숙동맹과 언약(Solemn League and Covenant)
1643-47. 웨스트민스터 총회 개최 (스코틀랜드 총대도 참여)

혁명 과정에서 사무엘 리더포드가 『법과 군주』(1644) 집필

(cf. 김종락, 「영국혁명, 국민언약 그리고 저항의 정당화」, 『영국연구』 2권)



3. 스코틀랜드 장로회교회와 저항권의 발전

『법과 군주』(*Lex, Rex*, 1644)

- 총 44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① 국왕은 신 앞에서 신민들과 언약에 들어간 사람 (왕위 즉위식 = 일종의 언약의식)
- ② 신민의 생명과 신앙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는 언약 위반
- ③ 언약 위반자는 저항 받아 마땅하다.
- ④ 법에 따른 왕권의 제한 및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공동체 즉 의회의 중요성 강조
- ⑤ 사적 저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회나 귀족들의 주도하에 가능

4. 국민저항과 대중주권의 발전

왕정복고와 언약도 저항운동의 심화

- 1660년 왕정복고 이후 찰스 2세 즉위
- 당국의 언약도 처벌, 저항서적 탄압 (금서, 분서, 집필자 처형)
- 언약도들은 야외집회 및 망명 후 후방 지원을 지속하며 장로회 신앙 고수
- 저항 서적 재출판 및 유포하는 과정에서 저항사상 급진화

후기 언약도의 딜레마

- 종교개혁가들에 따르면 왕에 대한 저항은 '귀족 및 관료'만 가능
- BUT. 왕정복고 이후 언약도 대표 귀족들이 모두 처형당한 상황
 - ⇒ 왕정복고 이후 민중의 저항을 이끌 주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최초로 "사적 저항권"이 제기됨



Bass Rock – 체포된 언약도 수용소

4. 국민저항과 대중주권의 발전

『남달리』(1667)

- 저자 : 제임스 스튜어트, 제임스 스텔링
- 「민수기」 25장 '비느하스의 살인' 예시를 들어 사적 저항의 가능성 제기

『방어에 대한 인간의 권리』(1669)

- 저자 : 제임스 스튜어트
- 주요내용
 - ① 정부와 통치자 선출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된 '수단' → 주객전도 시 저항 가능
 - ② 국왕과 신민들은 조건부 계약관계 → 계약을 위반한 국왕에게 합법적으로 저항 가능
 - ③ 왕권의 본질은 후견인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은 '수탁자' → 권력 남용 시 위임 취소 및 저항 가능
 - ④ 의회의 권력도 제한적 → 의회가 신민들을 대변하지 않을 시 꺾기하여 직접 저항 가능

⇒ 저항의 주체를 배타적인 영역에서의 귀족이나 의회를 넘어 민중의 영역까지 확대

4. 국민저항과 대중주권의 발전

17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국민저항

- 1665. 존 브라운, 『변론』 → 1666년 펜틀랜드 봉기
- 1667. 『납달리』에서 대주교 공개 저격 → 1668년 대주교 암살 시도
- 1678. 로버트 맥워드, 『가난한 이의 냉수 한 잔』 → 1679. 대주교 암살
- 1679. 「러더글렌 선언」 → 1679년 6천 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민중반란
1680년대 반정부, 반가톨릭 폭동

⇒ 17C 후반 저항사상의 사회적 파급력을 보여주는 결과

5. What shall we do then?

1.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단계적이어야 한다. 불복종과 도피가 우선이며, 무력저항은 최후 수단이다.
- 2.. 무력저항이전에 모든 창문이 닫혔는가를 살펴보라.

선거로 통치자를 바꿀 수 있는 경우 우리는 그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한다.

< 프란시스 웨퍼, *A Christian Manifesto* >

3. 사적 저항은 가능하나 판단오류, 실패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만의 고통인지, 이웃의 고통인지를 파악하라.
4. 교회(교단)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 지식인들은 분야별로 힘을 모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대중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야 한다.

4. 그리스도인의 저항은 그리스도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도록 통치자들에게 압력을 넣는 것까지 포함한다. 교육, 복지, 환경, 낙태, 성윤리 등의 분야도 기독교인의 저항이 필요한 부분이다.

5. 모든 사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은 없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당파적 환원주의보다는 사안별로 접근하여 정부나 정당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